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37 주차



INTRO

일요일 밤에 정청 상공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하늘이 열려 월요일 내내 성경에서 나올 법한 폭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노아의 방주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학교 건물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즉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SEE SAW, Microsoft Teams, ManageBac 과 Zoom 수업으로 전환하여 드래곤 하우스 휴게실에서 기숙생들과 집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변화에 꽤 능숙해 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은 2019-20년 전자 버전 연감이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제작해 주신 미디어 감독 선생님께 커다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하신 분들을 위해 고급 풀 컬러 하드백 버전이 곧 인쇄될 예정입니다. 기다리기 힘드네요!



이번 주에 캠퍼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PYP

Ms Kristi 선생님의 모든 유치원생들이 학교에 돌아온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은 Ms. Ha, Ms. Rebecca, Ms. Kelly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유치원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Ms. Ashley 선생님과 Ms. Kristie 선생님으로부터 하루에 두 번의 특별한 zoom 전화를 받고 몇 가지 학습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친구들과 다시 노는 것에 신이 났습니다. 저희는 저희 유치원생들이 학년을 마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모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주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Ms Jane 선생님의 미술 및 문화 수업에서 연꽃과 개구리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꽃은 여름의 대표적인 꽃 중 하나이며, 연꽃 씨는 먹을 수도 있고 약효도 뛰어납니다. 저희는 근처에서 연꽃, 로투스 씨앗, 그리고 몇 종류의 물고기들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자신만의 작품을 설계하는 것에 매우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4학년은 올해 초에 다루었던 수학 관련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Mr Avdoo 선생님의 설명으로 분수와 십진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의 홍수날에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놀다 남은 음식으로 분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분수가 포함된 지침(예: 컵의 $\frac{1}{4}$ 에 소금을 넣고, $\frac{3}{4}$ 컵의 따뜻한 물 첨가)을 섞어본 것뿐만 아니라 $\frac{1}{2}$ 및 $\frac{2}{4}$ 와 같이 찰흙으로 같은 비율의 분수를 만들어서 시각화해 보는 지침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whole

$$\frac{4}{8}$$



MYP

MYP 과학 수업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중력과 간단한 진자의 움직임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진자의 주기와 진자의 길이와 질량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버니어 포토게이트와 컴퓨터 관련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의 결과가 첨단기술로 얻은 결과와 매우 가깝다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실험 수업 시간에 실험 절차와 측정을 정확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OARDING

Message from Mr Jeremy:

'당신이 들어올까 두려워 하는 용의 굴은 당신이 찾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 Joseph Campbell

Post-Covid 5 주차에는 시작과 끝이 점점 넓어져가는 만델브로트의 패턴이 새롭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저희에게는 너무 친숙한 원형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숙생들은 학년 말이 가까워지면서 기숙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반복되는 과제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이제 여름 방학 R&R의 황홀경을 맞이하기 앞서 시험이라는 다가오는 고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래곤 하우스의 생활입니다.

태양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 에클레시아 교단







OUTRO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 내려서 모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의 사기를 조금도 꺾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실 과제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기회가 있을 때만다 지식의 바다로 뛰어들어 자신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심지어 코브라 카페에서 쉬는 시간에 음료와 간식을 얻기 위해 우산을 들고 폭풍우와 싸웠습니다! 지식의 진정한 고뇌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건조한 날씨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 행운을 빌며 만트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외치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는 여러분에게 작별을 고하고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